제목	포퓰리즘의 세계화					
링크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ltemId=100441970					
저자	존 주디스	발행연도	2017	발행기관	메디치	
키워드	포퓰리즘, 트럼프, 샌더스, 유럽, 미국					
주요 내용	서문 포퓰리즘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1장 미국 포퓰리즘의 논리: 인민당에서 조지 월리스까지 2장 신자유주의와 그 적들: 페로, 뷰캐넌, 티 파티, 월스트리트 점령 3장 침묵하는 다수와 정치 혁명: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 4장 유럽 포퓰리즘의 발흥 5장 좌익 포퓰리즘의 한계: 시리자와 포데모스 6장 북유럽 우익 포퓰리즘의 약진 결론 포퓰리즘의 과거와 미래 2017년 번역이나 2016년까지의 대략적인 1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의 포퓰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서문을 꼭 읽어보기를 제안. 포퓰리즘의 정의를 다루고 있으나, 포퓰리즘을 명확히 정의하기 보다 현재의 지배이념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명확한 포퓰리즘의 해결 방향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학회 활용방안 관련 활용자료 기타	보려면 통으로 보자 새내기들과 활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시도해볼만한다.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에 대해 사회과학적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 식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저널리스트이기에 쉽게 풀어써놓은 점 역시 이해를 돕는다. 서문을 꼭 읽어보고 활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가 자리잡았다고 자부하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포퓰리즘을 상세히 다루고 있어 활용할만하다. 포퓰리즘을 흔히 극우주의로 오해하지만, 포퓰리즘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좌파포퓰리즘의 대명사인 샌더스나, 시리자 등을 다루며 현재적 쟁점을 이야기해볼 수 있다.					